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3/4분기 성장률 2.0%로 예상치 하회 델타 변이와 공급 차질 등이 영향
 - 미국 대통령, 사회복지 및 기후 대응 예산안을 1.75조달러 규모로 축소
 - ECB,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현행 자산매입 규모와 주요 정책금리를 유지
 - 일본은행, 정책금리 동결,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양호한 기업실적을 배경으로 주요 주가지수의 신고가 경신 지속
주가 상승[+1.0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상승[+4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와 박테크 강세 등이 견인
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.2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한 3/4분기 미국 성장률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7%, 0.2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간 고용지표 개선 등이 반영
 독일은 ECB의 고물가 지속 가능성 제시 등으로 4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69.5원, -1.3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28일	10/27일	전일대비			10/28일	10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96.4	4,551.7	0.98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8%	1.54%	4bp
	유럽	475.16	474.04	0.24%		독일	-0.14%	-0.18%	4bp
	중국	3,518.4	3,562.3	-1.23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8,820	29,098	-0.96%		중국	46bp	45bp	1bp
	한국	3,009.6	3,025.5	-0.53%	위험 지표	EMBI+	-	375	-
환율	달러지수	93.35	93.80	-0.48%		VIX	16.53	16.98	-2.65%
	유로화	1.1681	1.1603	0.67%		WTI유	82.81	82.66	0.18%
	엔화	113.58	113.83	0.22%	원자재	구리	443.0	439.0	0.92%
	위안화	6.3918	6.3924	0.01%		금	1,798.9	1,796.8	0.12%
	원화	1,169.7	1,170.0	0.0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/4분기 성장률, 2.0%로 예상치 하회. 델타 변이와 공급 차질 등이 영향

- 상무부에 따르면, 이번 결과(속보치)는 예상치(2.7%)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0년 2/4분기 이후 최저 수준. 델타 변이와 공급 차질 이외에도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8월 발생한 허리케인 등이 경기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
- 항목별로는 경제의 2/3를 차지하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1.6%에 그쳤으며, 특히 자동차 판매 등이 부진. 한편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 상승률은 5.3%로 전분기(6.5%) 대비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된 것으로 확인
- 다만 Northern Trust의 Carl Tannenbaum은 델타 변이 감염이 둔화되면서 향후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. Moody's Analytics의 Ryan Sweet도 금년 4/4분기와 내년 1/4분기까지 성장률의 가속화를 예상한다고 언급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대통령, 사회복지 및 기후 대응 예산안을 1.75조달러 규모로 축소

-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.5조달러 규모인 해당 예산안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으며, 백악관의 관료들은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안을 반대하는 민주당 내 온건파 상원의원들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.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은 부정적 의견 피력
-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및 기후 대응 예산안을 '예산조정 절차'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

■ 미국 지난 주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28.1만건으로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

- 노동부에 따르면, 해당 건수는 2주 전보다 1만건 감소. 연속 실업급여청구건수도 224.3만건으로 2020년 3월 이후 최저. Naroff Economics의 Joel Naroff는 노동시장에서 수급이 팽팽한(tight)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

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, 중국과의 무역 관련 긴장 완화가 목표

- 타이 대표는 양국이 현재 불쏘시개를 쌓아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며, 만일의 경우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. 이에 양국의 관계를 좀 더 진정시키고, 대화를 통해 무역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

■ ECB,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현행 자산매입 규모와 주요 정책금리를 유지

-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을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지속하고, 매월 200억유로 규모의 통상적인 자산매입(APP) 및 목표물장기대출프로그램(TLTRO III)도 유지. 기준금리(0.0%), 수신회전금리(-0.5%), 한계대출금리(0.25%) 등 주요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
-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. 또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내년에 결국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
- Credit Suisse의 Neville Hill은 라가르드 총재가 내년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시장 전망에 동의하지 않음을 강조했지만, 이는 절반 정도만 성공했다고 평가. 이날 역대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는 매파적(hawkish)인 움직임이 발생

■ 독일 10월 소비자물가(HICP), 전년동월비 4.6% 상승. 통계 작성(1997년) 이후 최고치

- 이번 결과는 전월(4.1%) 및 예상치(4.5%)를 모두 상회. 시장에서는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, 물가상승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

■ 일본은행, 현행 정책금리 동결.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

- 통화정책회의에서 10년물 국채금리의 목표치를 0%로, 정책금리도 현행 -0.1%로 유지. 자산매입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. 금년 성장률을 3.4%로 전망하여 이전(3.8%) 대비 하향. 2022년 성장률 전망치는 2.9%(이전 2.7%)로 상향
- 구로다 총재는 일본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. 또한 최근 엔화 약세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잠정주택판매(전월비): -2.3%, 8월(8.1%), 예상치(0.0%)
-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지수: -4.8, 9월(-4.0), 예상치(-4.8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2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개인소득, 개인 소비지출, 10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,
- 미국 10월 시카고 PMI, 유로존 3/4분기 성장률, 10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글로벌 채권시장, 예상보다 강한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선회 가능성을 반영 - 블룸버그**
(A Hawkish Dawn Starts to Break Over Global Bond Markets)
 - 캐나다 중앙은행은 점진적 자산매입 종료 예상과 달리 일시 중단을 발표하고 조기 금리인상 의지를 표명. 영란은행도 연내 금리인상 압력이 가중. 이에 양국의 장단기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히 감소하는 플래트닝 현상이 발생
 - 미국은 상대적으로 긴축에 있어 덜 공격적인 행보가 예상되지만, 장단기 채권 금리도 플래트닝이 진행 중. 아울러 주식시장 호조로 인해 11월 테이퍼링 시행이 확실시되고, 금리인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 - 블룸버그의 세계금리확률(WMRP)도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대응을 전망. 특히 가능성이 낮지만,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인상이 가능함을 시사
- **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, 주요 배출국의 반대로 목표 달성은 불확실 - Financial Times**
(Climate Summit clouded by main polluters' refusal to tighten targets)
 -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(COP26)를 앞두고 있지만, 중국과 인도 등 핵심 탄소 배출국은 강화된 탄소 배출 목표 제시를 거부. 중국은 탄소배출이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지나고, 2060년 자연적인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는 이전 목표를 다시 제출
 - 세계 3위 탄소 배출 국가인 인도는 석탄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고 주장. 미국의 케리 기후 대사 등은 여전히 COP26을 통해 위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, 국가별로 목표치가 달라 가능 여부는 불투명
- **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, 경기침체 방지 등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- 블룸버그**
(The Inflation Fight Could Easily Go Too Far)
- **미국 파생시장, 2022년 2회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 - Reuters**
(U.S. rate options market bets on aggressive Fed hikes)
- **중국의 주택시장 문제,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- Financial Times**
(China needs to learn lessons from Japan's 1990s collaps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